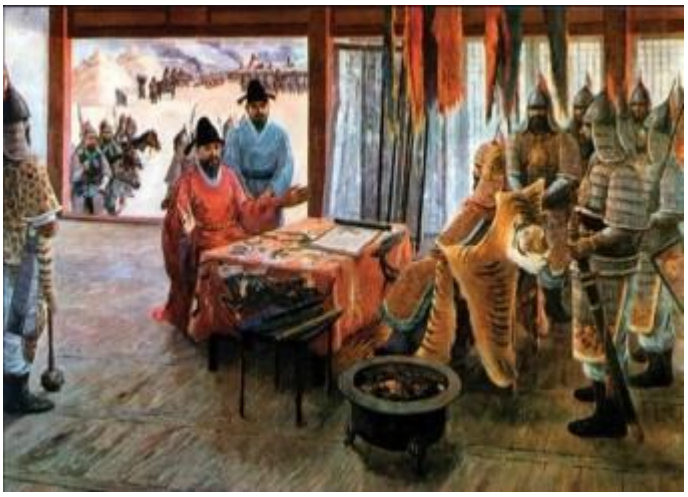
›서희의 외교 담판이란?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고려의 장수 서희가 거란장수 소손녕과 벌인 담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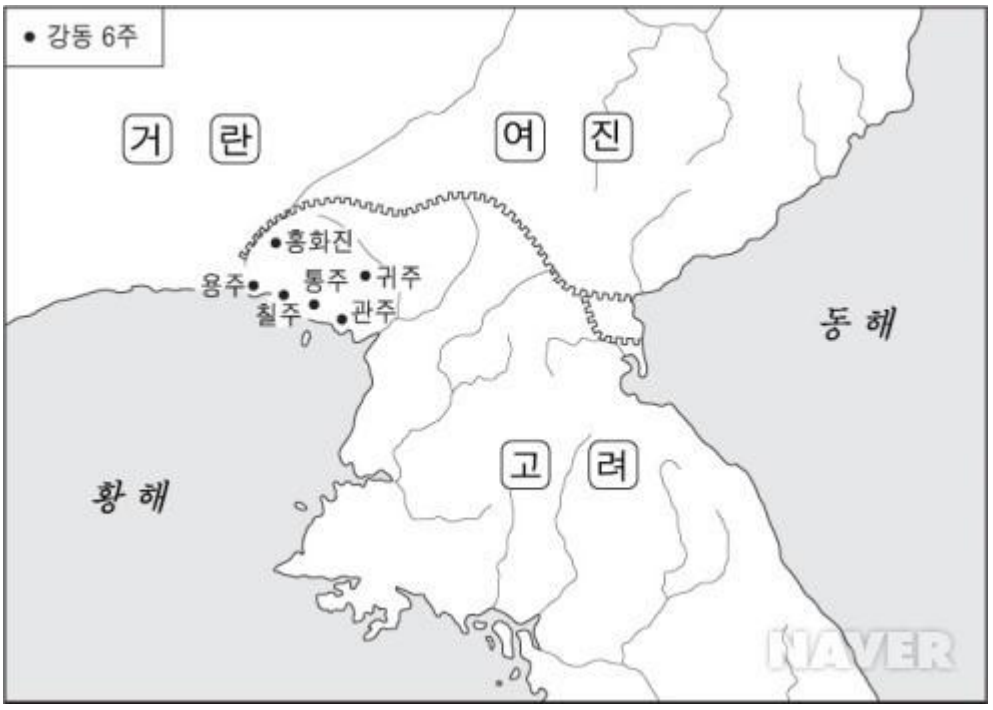
993년 거란이 소손녕을 장수로 삼아 고려에 침입해 왔을 때, 고려조정에서는 중신(重臣)을 시켜 항복하자는 의견과 서경 이북의 땅을 베어주고 절령(岊嶺, 자비령)을 경계로 삼자는 견해(할지론(割地論)) 등이 나왔다. 이에 성종도 할지론을 따르려 했으나 적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간파한 서희는 저들의 출병이 영토의 확장에 있지 않음을 아뢰고 왕의 동의를 받아 직접 적진에 나아가 소손녕과 담판하게 되었다. 이 담판에서 소손녕은 침입의 이유로 「고려는 신라땅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구려땅을 침식하고 있으며 자기 나라와 땅을 연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는 점을 들고, 따라서 「만약 땅을 베어 바치고 조빙을 닦으면 무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희는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옛 터전으로 했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한 것이다. 만일 지계(地界)로 논한다면 상국(上國)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 경역 안에 있는 셈인데 어찌 침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경내였는데 여진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어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빙을 통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 성보(城堡)를 쌓고 길이 통하게 된다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고 답변했다. 서희의 당당하고 조리있는 변론을 들은 소손녕은 군사를 돌리고, 약속대로 고려가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을 개척하는 데도 동의해 강동6주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3. 30., 한국사사전편찬회)

›강동 6주란?

993년 고려의 서희 장군이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하여 차지한 지역을 말한다. 강동 6주의 위치는 흥화, 용주, 통주, 철주, 구주, 곽주 등 압록강 하류와 청천강의 중간 지역으로 현재의 평안도 지역이다. 강동 6주를 차지한 후 청천강에서 영흥이었던 고려의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영흥으로 확대되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과 같다.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황병석)